

포스트 카다피, 리비아 시장 전망

(2011.09.14)

[목차]

요약	1
Ⅰ. 리비아 사태 현황	2
Ⅱ. 향후 정세 및 시장 변화 전망	8
Ⅲ. 리비아 전후 복구 시장 전망	12
Ⅳ. 우리기업 진출 전략 및 시사점	15
참고자료. 한-리비아 교역 동향	17

작성 : 중아CIS팀 한석우 과장(swhan@kotra.or.kr)
감수 : 중아CIS팀 정영화 팀장(yhjung@kotra.or.kr)

요 약

1. 리비아 사태 현황

- 시민군의 트리폴리 함락으로 42년 간의 카다피 독재 정권 사실상 붕괴
- 8.26일 NTC의 종전 선언 및 포스트-카다피 정부수립 로드맵 발표

2. 향후 정세 및 시장 변화 전망

- 신리비아 정부 수립계획 추진 및 벵가지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 부상
- 시리아/예멘 등 민주화 시위 진행국에 적지 않은 영향 끼칠 것
-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 및 서방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석유개발 및 플랜트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 예상,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전망

3. 리비아 전후 복구 시장 전망

- Post-카다피 전후 복구 위한 프로젝트 규모 1,200억불, 자동차/건설 중장비/의료기기 및 용품 등 수입 수요 급증할 전망
 - 한국 건설기업 총 366억불 수주, 사태 전 21개사 105억불 규모 공사, 연 14억불 상품 수출
 - * NTC, 기존 정권과 체결한 계약 및 조약 준수 천명
- 리비아 사태 후 유사한 걸프전 및 이라크전과 같이 ‘전쟁기-회복기-성장기’ 패턴에 따라 우리 수출 대폭 증가 전망

4. 우리기업 진출 전략 및 시사점

- 리비아 사회에 대한 기업이익 환원에도 적극적인 관심 필요 - 식품, 의약품 무상지원,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무상 건설 및 보수 지원 등
- 1,200억불 규모 재건/복구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조기 인맥 구축
-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, 리비아의 지리적 이점 및 유럽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에 주목 필요

I

리비아 사태 현황

가. 중동 민주화 사태 최초, 무력에 의한 독재 정권 붕괴

□ 시민군의 트리폴리 함락, 42년간의 카다피 정권 몰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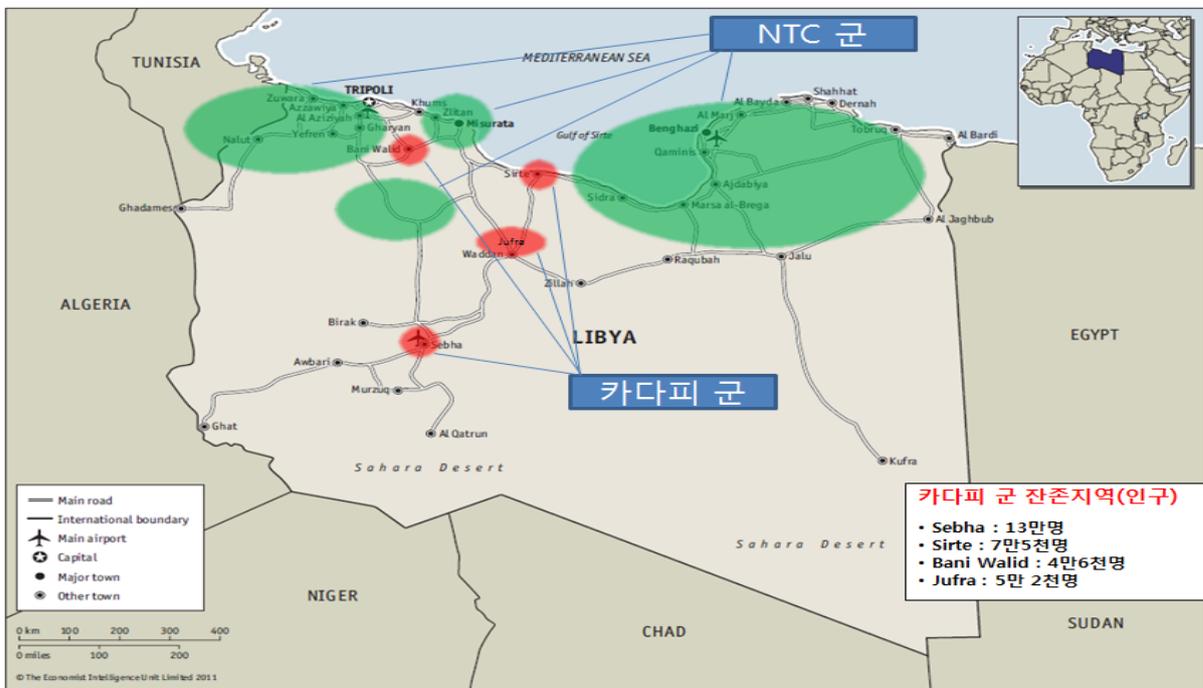
- 2.15일 시민군의 거점인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, 6개월간의 내전 끝에 수도 '트리폴리' 점령
 - 반카다피 세력(주와야족, 와르팔라)은 과거 왕정 기반지였던 동부 '벵가지'에서 일어나, 카다피족 등 친카다피 부족의 거점인 서부 도시를 차례로 점령
 - 리비아 사태는 튀니지, 이집트와 같이 독재정권과 전국민간의 대결이라기보다 기득권 부족(카다피 족 등)과 비기득권 부족(주와이야, 와르팔라 족등)과의 투쟁 양상
- 수도 트리폴리 함락으로, 카다피 정권은 사실상 붕괴
 - 8.24일 리비아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 트리폴리는, 카다피궁이 있는 '바브 알-아지자야'의 함락을 마지막으로 시민군이 완전 점령
 - 카다피 및 일가, 주요 정권 핵심인사는 해외망명 및 친카다피 도시로 분산 도주 . 카다피의 거취는 오리무중, 카다피 가족 및 정권 핵심인사는 알제리 및 니제르로 망명
 - 바니 왈리드, 시르테, 사마 등 친카다피 도시에서는 시민군에 대한 격렬한 저항 지속 . 카다피 추종세력의 협박 및 반시민군 선전의 영향이 클 것

□ NTC의 종전 선언 및 포스트-카다피 리비아 정부 수립 로드맵 발표

- 8.26일 NTC, 리비아 내전 승리 및 신 리비아 정부 수립 착수 발표
 - 거점을 벵가지에서 트리폴리로 이전, '포스트 카다피' 정권 수립 작업 개시
 - 9.11일, 1~2주 내에 각 지역 대표 포함 범국가적 임시정부 출범 계획 발표

- 9.1일 파리에서 미국, 프랑스, 영국 등 60개국 정상과 외교사절이 모여, '리비아 재건지원 파리회의(『리비아의 친구들』 컨퍼런스)' 개최
- 국가과도위(NTC)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, 포스트 카다피 체제에 대한 정치.경제적 로드맵 발표, 국제사회 지원 요청
- “인도주의적 지원과 식수, 전기, 연료 공급망 복구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며, 투자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사안”(프랑스 알랭 쥐페 외무장관)

〈카다피군과 시민군(NTC)의 리비아 점유 현황(9.13일)〉



자료원 : KOTRA, EIU

나. 리비아 사태 주요 일지

리비아 사태 일지

- 2월15일 :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
- 2월17일 : 페이스북을 통해 '분노의 날' 행사 제안
- 2월26일 : 유엔 안전보장이사회, 리비아 정부군의 민간인 유혈 진압을 반인류 범죄로 보고,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할 것을 결의
- 3월 1일 : 반정부 세력, 리비아 동부 및 서부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 확보, 수도 트리폴리는 카다피 정권의 지배 아래 남음
- 3월 5일 : 벵가지에서 대표기구인 국가 과도위원회(NTC) 발족, 리비아 국민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자처
- 3월10일 : 프랑스 정부, NTC를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첫 공식 인정
- 3월17일 : 유엔 안보리의 군사적 개입 승인 결의로 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 구역(NFZ) 설정
- 3월18일 : 리비아 정부 "즉각적인 정전과 모든 군사 작전의 중단" 선언
- 3월23일 : NTC,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임시정부 공식 출범
- 3월28일 : 카타르, 프랑스에 이어 NTC를 리비아의 공식 정부로 인정
- 4월 5일 : 리비아 동부 석유수출항 토브루크에 유조선 입항하는 등 원유 수출 준비
- 5월11일 : NTC, 서부의 전략 요충지 미스라타 공항 장악
- 5월27일 : 리비아 前중앙은행장 파라트 오마르 빈 귀다라 NTC에 합류
- 6월 9일 : 미국, 유럽 주요국 등 30여 개국 대표가 참여한 리비아 연락그룹 회의 아부다비에서 개최, '포스트 카다피' 논의
- 7월13일 : 베네룩스 3국, NTC를 리비아 국민 대표기구로 승인
- 7월15일 :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이 참여한 리비아 '연락그룹' 회의에서, NTC를 리비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
- 8월15일 : NTC, 수도 트리폴리 인접한 서부 전략 요충지 자위야 진입
- 8월20일 : NTC, 트리폴리 길목인 전략 요충지 자위야와 줄리탄 장악
- 8월23일 : 카다피 진영의 최후 거점인 바브 알아지지가 요새 함락. NTC의 트리폴리 전투 종료
- 8월26일 : NTC의 전쟁 승리 및 신 리비아 정부 수립 착수 발표
- 9월 2일 : NTC, 파리회의에서 리비아 재건 로드맵 발표

다. 트리폴리 시내 현황[9.14일기준]

【세관/항만】 업무 정상화

- LNG선을 비롯한 화물선들이 트리폴리 항에서 하역 대기 중이나, 부두 부족으로 차질
- 이번 주부터 업무 시간 09:00~17:00까지 연장, 정상화 급속 진전

【주유】 사태 전 상황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 중

- 평균 주유 대기 시간 15~30분 대로, 시민군은 자위야 정유시설 보유 휘발유 공급으로 차츰 정상화
- 내전 중 휘발유 품귀로 밀거래 성황, 종전에 비해 3~5배 높은 가격으로 매매, 일반 영업 택시요금이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하였음

【통신/전력/수도 인프라】

- (통신) 트리폴리 시내 및 국제전화 통신 복구
- (전력) 매일 1~2시간내 정전을 제외하면, 전력난 대폭 해소, 전력 상태도 양호
- (식수) 대수로물 공급으로 일반 시민의 식수 애로 해결, 공급 상태 양호
- 카다피군 트리폴리 퇴각 후, 대수로물에 독극물 살포했다는 루머로 시민들은 우물에서 식수를 해결하기도 하였음

【은행】

- 현재 대달러 디나르화 환율은 1.21 수준으로 향후 1.0 이하로 환율 조정 움직임
- 업무 정상화 진전(업무시간 : 08:30~14:00)
- 단, 외환업무(환전,송금,L/C개설)는 아직 불가
- 새로운 화폐 제작 추진 중
- 카다피 초상화가 그려진 현 상용(10디나르 제외한 모든)지폐의 교체 추진

라. 리비아의 경제적 중요성

- 원유 매장량 464억 배럴(2011)로 세계 8위, 아프리카 1위(세계 공급 2%)
 - 일일 원유 가용 생산량은 180만 b/d, 대부분 질 좋은 저유황 경질유
 - 이태리(28%), 프랑스(15%), 중국(11%), 독일, 스페인, 그리스, 영국, 미국 순 수출
 - 사태 전 매년 600억불 재원 축적(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 포함)
 - 천연 가스 매장량도 1.54조 c/m로 전 세계 매장량의 1% 규모

- 연간 프로젝트 발주규모 540억불 규모, 사태 전 1,234억불 규모 ‘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5개년 계획’ 수립
 - 전략 프로젝트 개발 계획에 따라 대규모 주택, 플랜트, 인프라 프로젝트 역점 추진
 - 향후 국가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 규모 더욱 늘어날 전망
 - 해외 동결된 리비아 자금 1,600억불 규모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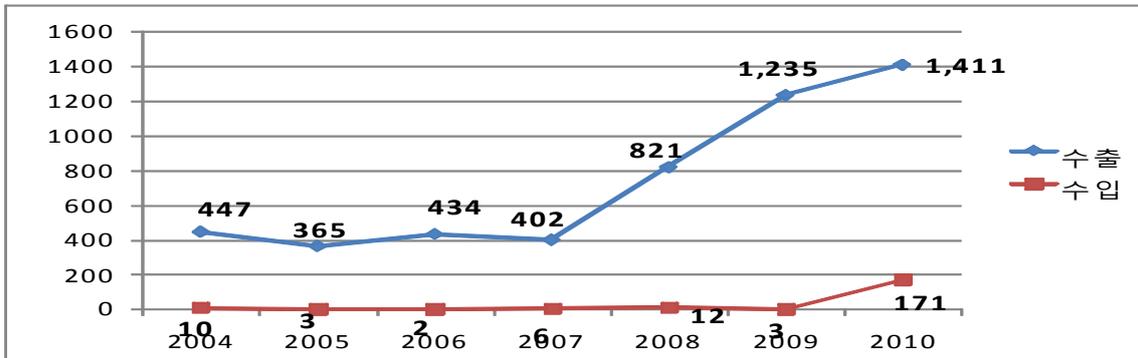
마. 한-리비아 교역 관계

- 리비아 ‘엘레펀트’ 유전에 한국 컨소시엄 지분 참여, 원유 생산
 - 한국 해외유전 개발 광구 중 중동 지역 대표적 사례, 일 13만 배럴 생산 가능

- 한국의 리비아 프로젝트 수주 미화 366억불, 중동 내 사우디, UAE 다음
 - 한국, 리비아 프로젝트의 약 1/3 수주
 - 사태 전, 227억불 규모 프로젝트 진행(100억불 규모 대수로 공사 포함)

- 2010년 14억불 수출, 최근 지속 증가세(2007년 대비 3.5배 증가)
 - 선박, 승용차, 가열난방기, 건축기자재, 전자제품 순 수출
 - 수입은 1.5억불 규모 나프타,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대다수

우리나라의 리비아 수출입(백만\$)



자료원 : 관세청 무역통계

- 중동 내 UAE 다음의 제 2위 투자 대상국이나 건설 및 광업(유전개발)에 치중, 제조업 투자는 0건
 - 對리비아 총 투자액(330백만불)중 광업(264백만불), 건설업(28백만불)이 대부분, 제조업 및 유통 부분 투자는 전무
 - 향후 리비아 경제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우리기업의 대 리비아 제조 부문 투자에 관심 필요

II 향후 정세 및 시장 변화 전망

가. 향후 정세 전망

□ NTC, 정부 수립 계획 중

- NTC, 2013년 초까지 의회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한 이슬람 민주국가 설립 계획

<포스트-카타피 정부수립 계획>

시기	주요 내용
'11. 8.26.	○ NTC의 리비아 전쟁 승리 및 해방 선언
+ 1개월 내	○ 임시 내각 수립 - 전체 65개 의석 중 친카타피 부족에 25개 의석 배정 예정
+ 2개월 내	○ 제헌 의원 선거법 제정
+ 5개월 내	○ 헌법제정위원회 제헌의원 200명 직선제 선출 - 제1회 제헌의회 회의에서 NTC 해체
+ 1개월 내	○ 헌법제정위에서 총리 선출 - 총리는 임시정부 각료 임명
+ 2~4개월 내	○ 헌법제정위, 각 분과 위원회 설치 및 헌법초안 작성 ○ 헌법제정위 승인 후 국민투표 실시 - 투표자의 2/3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
+ 12개월 내	○ 총선 및 대선 실시, 리비아 신정부 탄생

자료 : EIU, 언론 종합

- 카타피 축출 후 NTC 및 시민군 지도층의 강경파와 온건파간 이견, 이슬람 원리 주의 세력의 확대,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부족간 갈등, 친정부 세력의 게릴라화 등 우려는 향후 정세 변화에 변수로 작용
- 향후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제정, 법률제정, 공정선거 제도 도입 및 실행 진행 속도에 큰 영향 줄 것
- NTC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,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물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

□ 뱅가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 부상 전망

- Post-카다피 리비아 정부, NTC 주요 인사들의 근거지로 반카다피 세력의 중심이었던 뱅가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 형성될 것
 - 비록 전 부족과의 화합을 통한 이슬람 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뱅가지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 동부지역 인사들이 NTC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 예의 주시
- 뱅가지는 과거 왕정시대 수도로서 카다피 집권 이후 각종 개발 계획에서 철저히 외면, 도시개발 수준이 매우 낙후 되어있음
 - 반면, 리비아 동부지역에 전체 원유의 70% 상당 매장, 원유 수익 배분에서 동 지역 부족들의 자금 및 경제력 향상될 것
 - 향후 다양한 뱅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

□ 중동 민주화 사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

-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력 진압을 시도한 카다피 정권의 몰락은 시리아와 예멘에 큰 영향을 미칠 것
 - 지난 수개월 동안 만성적 시위로 악화된 시리아 및 예멘의 민주화 운동이 리비아 사태를 통한 학습 효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 높음
- 아랍 민족주의의 공식적인 종언과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에 일대 혼란 초래 가능
 - 카다피, 사담후세인과 함께 닷세리즘(Nasserism)을 계승한 아랍민족주의 마지막 주창자
 - 카다피의 원조를 받던 서브아프리카 독재 정권의 불안정성 초래 및 정치적 결속에 영향 미칠 것

나. 향후 시장 변화 전망

□ 서방기업 중심의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될 전망

-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이태리 등 NATO군 및 서방국 중심의 '리비아 연락그룹'의 직·간접적 지원 받은 차기 리비아 정부에 대한 서방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으로 서방국 및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및 경제적 이권 부여 가능
 - 예 : 리비아 생산 원유의 35%를 프랑스에 할당한다는 NTC와 프랑스 간 비밀 약속 서한 발견(프랑스 리베라시옹 신문, 9.1일자)
- 그동안, 리비아 건설 및 무역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터키, 이태리, 한국 외에, 프랑스, 영국, 미국 등 서방국들의 진출 확대로 경쟁이 매우 격화될 것으로 전망
 - 무역부문 보다는 석유개발 및 플랜트 부문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- 반면, NTC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, 카다피 정권을 옹호했던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

□ 프로젝트 및 시장 관리 제도 개선

- 카다피 집권 기간 중 건설 및 프로젝트 발주에 있어 정권과 유착된 기업과의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
- 상품 부문에서도 건설중장비, 의료기기 및 장비, 자동차 등 수입을 위한 에이전트 제도 등 무역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
 - 그동안 정부의 관리 및 통제 능력 부재로 인한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민간 부문 등 경제 주체들의 발전 저해

□ 자유 시장경제 도입

- 2004년 4월,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, 개방 경제 및 통제 경제 정책을 병행해 왔던 리비아는 41년간의 장기 독재 정치 종료, 민주국가 설립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
- 단, 향후 수년간은 국가 중심의 강력한 복구/재건 사업 추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

□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제도 개선

- 2010년 발표된 제조업 육성 3개년 계획을 비롯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제도 개선과 함께, 적극 전개될 전망
- 북아프리카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아프리카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자유무역 및 경제 지대 조성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 높음

III 리비아 전후 복구 시장 전망

가. Post-카다피 시장 전망

□ 전후 복구 프로젝트를 위해 수년간 1,200억불 규모 시장 열릴 것

- MEED, 건축, 산업설비, 토목 분야 약 1,200억불 규모 프로젝트 나올 것으로 전망
- 카다피 정권 시절 발표된 1,234억불 규모 '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5개년 계획'에 포함된 재건복구 프로젝트가 수년간 발주될 것(주택, 플랜트,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)
- 현재 해외 동결된 1,600억불 규모의 리비아 자금 해제 시, 자금력 보충될 것

[리비아 재건사업 분야별 전망]

분야	세부분야	금액(억불)
건축	도시개발	740
	대학	11
	주택	10
	호텔	1
	기타	73
산업설비	가스시설(LNG)	66
	발전소	52
	석유화학	33
	석유&가스 생산 시설	35
	정유시설	21
	가스처리시설	1
	제련소 등 기타	149
토목	도로·항만 인프라	33
	상하수도	3
총계		1,228

자료원 : MEED(2011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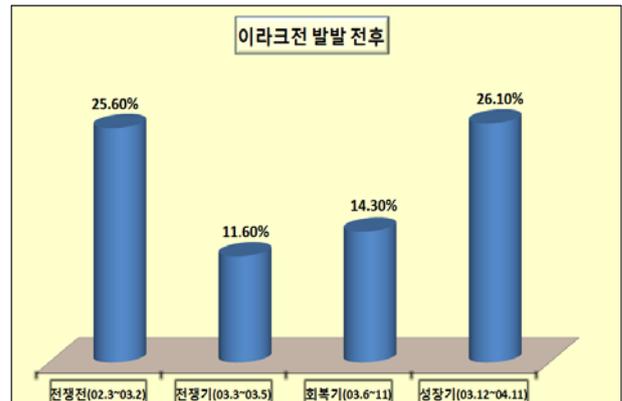
□ 향후 350~500억불 규모 리비아 수입시장 확대 가능성 다대

- 전쟁물자로 동원된 건설중장비, 건설기자재, 자동차 및 부품, 의료기기/용품 등 수입 수요 급증할 것
- 수입 시장 자율화로 국민들의 다양한 소비수요에 부응한 신규 수입수요 창출 전망

나. 쿠웨이트 및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례

□ 과거 중동사태(걸프전/이라크전), 우리 수출 및 건설/플랜트 호재로 작용

- 현 리비아 사태와 상황이 유사한 걸프전('91.1월~2월) 및 이라크 전쟁('03.3월~5월) 전후 우리 수출이 대폭 늘어 남
- 이전 활발하던 수출이 전쟁 중 얼어붙었다가 6개월 정도의 회복기를 거쳐 큰 폭의 성장세로 전환, 『전쟁기(수축기)→회복기→성장기』 패턴
- 품목별로 기계류, 모포류 등 복구 관련 품목과 무기류의 증가세가 뚜렷
- 반면, 불요불급한 품목은 매우 부진, 일반 소비재는 보통



자료원 : 관세청 무역통계

□ 걸프전 및 이라크 전 시대 중동 수출 현황

【걸프전의 경우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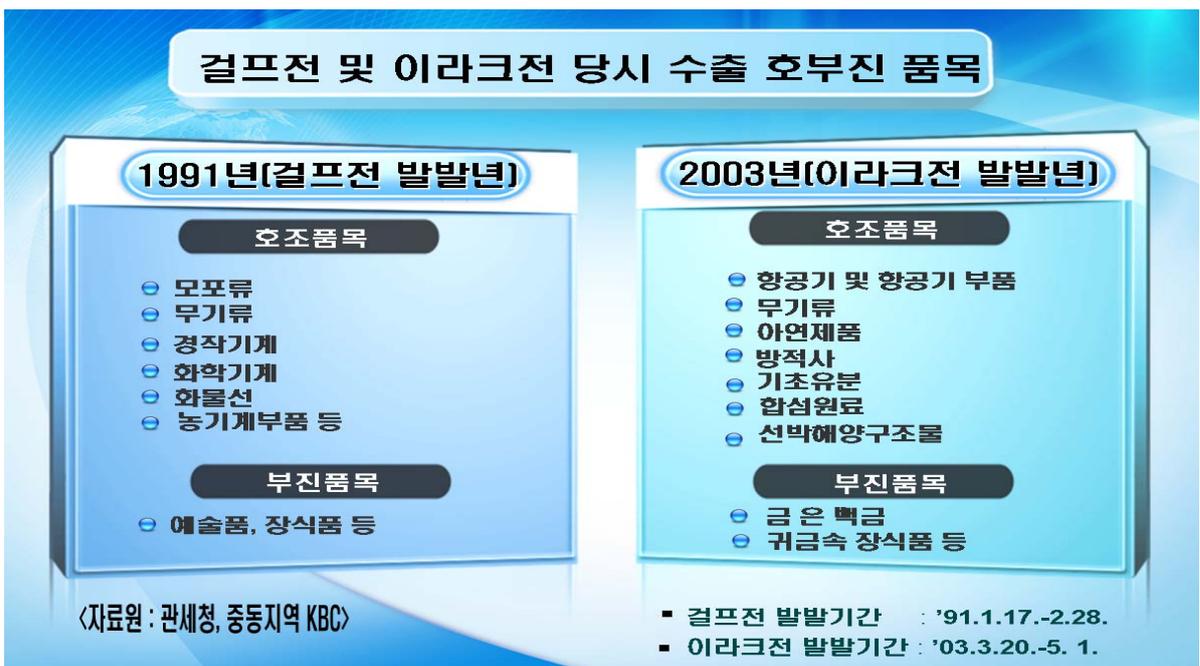
- 걸프전쟁은 전쟁기인 1, 2월중 수출이 급랭하였으나, 회복기인 3~8월 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, 성장기인 9월에서 익년 8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
- 전쟁기 : -18.7%, 회복기 : 2.8%, 성장기 : 28.6%
- 품목별로는 기계류, 석유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음, 연간 수출액이 100만불을 상회하는 품목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으로는 모포(162,975.4%), 화학

기계(14,237.2%), 화물선(8,250%), 농기계 부품(6,699.2%), 변압기(1,408.3%) 등 전후복구 관련 품목과 무기류(32,543.6%)였음

- 반면, 예술품, 가발·모조눈썹 등 불요불급한 제품은 수출이 매우 부진, 일반 소비재는 보통 수준

【이라크전의 경우】

- 이라크전쟁의 경우, 전쟁기인 3~5월에는 소폭 증가하고 그 후 6~11월에는 회복기, 12월에서 익년 11월까지 성장기 시현
 - 전쟁기 : 11.6%, 회복기 : 14.3%, 성장기 26.1%
- 품목별로는 '91년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기계류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음, 연간 수출액이 100만 불을 상회하는 품목으로서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항공기·부품(1,518.7%), 아연제품(392.5%), 방적사(270.2%), 기초유분(240.5%), 합섬원료(206.4%), 선박해양구조물(152.0%) 등과 무기류(438.2%)였음
 - 금·은·백금(-95.0%), 귀금속장식품(-35.3%), 가발·모조눈썹(-26.4%) 등 불요불급한 제품과 일반 소비재는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



IV | **우리기업 진출 전략 및 시사점**

□ 리비아 사회에 대한 기업이익 환원에도 적극적인 관심 필요

- 리비아인들 사이에 한국기업은 건설수주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,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리비아 사회로의 기여는 소홀했다고 평가
 - * 최근 정부는 150만불(정부 100만불, 16개 진출기업 50만불)규모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결정
- 과거 리비아에서 얻은 이익으로 리비아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미지 심어줄 필요 있음
 - 식품, 의약품 등 무상지원,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무상 건설 및 보수 지원 등
- 리비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리비아 경제 복구 및 상호 동반성장에 일조하는 노력 필요

□ 단기적으로 소비재 품목, 중장기적 건설·플랜트 기자재 수요 폭증할 것

- 리비아 시장은 단기적으로 치안 악화로 보안시스템,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홈 씨어터, 대형AV 기기 등 가전제품 및 자동차, 의류, 의약품/장비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
- 장기적으로는 건설·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유전 개발 및 건설/ 플랜트 기자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건설 기자재 : 철강제품, 스텐레스 강관, 플라스틱 파이프
 - 플랜트 기자재 : 열교환기, 베슬, 냉각기, 밸브, 플렌지, 변압기
 - 건설중장비 : 타워 크레인, 콘크리트 믹서기, 휠로더, 포크레인 등

□ 대대적으로 개방화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환경 변화에 주목

- 2010년 발표되었으나 실행이 중단된 제조업 육성 3개년 계획을 비롯,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적극 전개될 것
 - 시장개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기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
 - 리비아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별 직업훈련센터 건립 지원 필요
- 유럽-아프리카-중동간 교두보로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센터 역할, 제조업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가능 지역으로서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필요
 - 주와야 자유무역지대 등 전략적 자유경제구역 개발에 관심 필요

□ 1,200억불 규모 재건/복구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조기 인맥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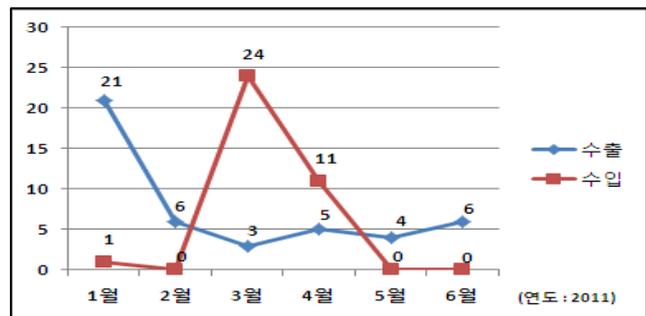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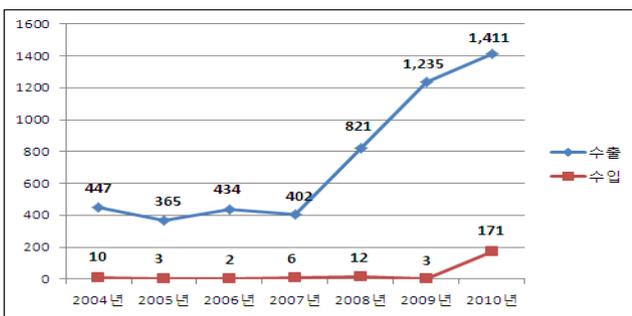
- 리비아의 포스트-카다피 정부 수립 계획상, 향후 1~2년 사이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은 어려울 전망
 - 단, 긴급한 시설 복구 및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임시정부 기간에도 추진될 것
- 향후 1,200억불 규모로 전망되는 리비아 재건/복구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 리비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, 조기에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

[참고자료] 한-리비아 교역 동향

□ 한-리비아 수출입동향(2004년~2011년 7월)

(단위 : US\$ 백만)

구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(~7월)
수출	447	365	434	402	821	1,235	1,411	715
수입	10	3	2	6	12	3	171	135
무역수지	437	362	432	396	809	1,232	1,240	571



자료원 : 관세청 무역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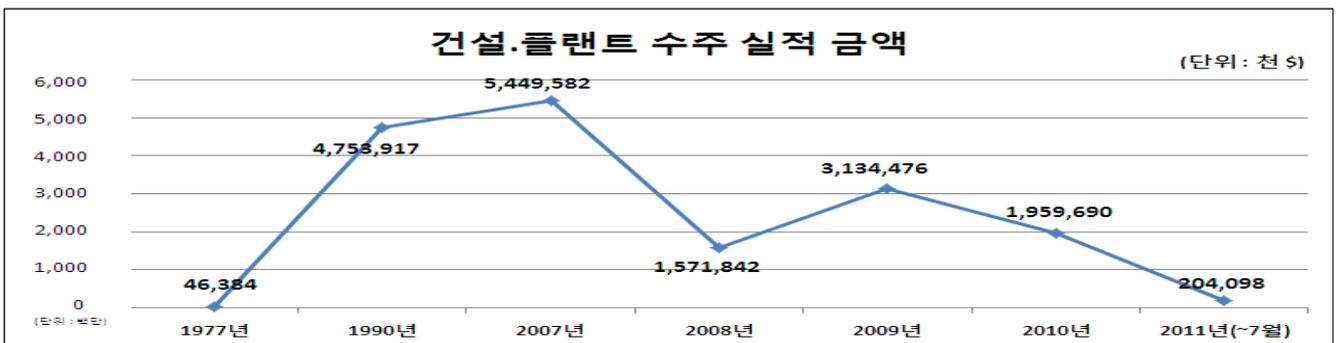
- 수출품목(2010) : 선박(25.4), 승용차(18.5%), 가열난방기(7.0%), 건설중장비(3.9%), 철구조물(3.8%)
- 수입품목 : 나프타(63.0%), 원유(21.8%), 기타석유제품(11.7%), 참치(1.0%)

□ 대리비아 투자실적 : 38건 5억 1,800만불('11.6월)

□ 진출기업 : 47사(지사40+법인2+개인무역업5)

□ 건설.플랜트 수주실적(천\$)

년도	1977	1990	2007	2008	2009	2010	2011(~7월)	누계
금액	46,384	4,753,917	5,449,582	1,571,842	3,134,476	1,959,690	204,098	36,632,198
건수	3	5	16	21	21	9	1	296



자료원 : 해외건설협회

<<<

Kotra Executive Brief 11-018

포스트 카다피, 리비아 시장 전망

발행인 | 홍석우
편집인 | 박진형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1년 9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